

경북도, 맞춤형 시책 마련해 청렴문화 선도한다!

이철우 지사, 5년 연속 청렴도 최고등급 위해 '청백리 회의' 직접 주재



경북도는 2일 도청 원용실에서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경상북도 청백리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반부패·청렴 정책을 논의했다. 경상북도 청백리 회의는 경상북도 반부패·청렴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지

난해 도지사를 의장으로 행정부지사와 청렴정책 핵심 협조부서 실·국·과장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지사가 직접 회의를 주관하여 도의 청렴 좌표를 진단하고 중점 시책을 개발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 및 청렴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권익위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와 역점 시책들이 논의됐다. 올해 경북도는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 실현을 목표로 도민 체감형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둔다. 우선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등 4대 대민업무 만족도와 청렴체감도를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청렴해피콜 설문결과에 따르면 업무 절차·기준의 투명성 및 동일성 부족, 업무절차 간소화, 업무처리 지연, 소통 부족 등 업무처리 과정에 대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이 제기됐다. 도는 올해 도민 체감형 반부패 청렴정책 4대 방향으로 부패취약 분야 대민 정책소통 강화, 부패행위 엄정대처, 청렴규범 생활화,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정하고,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이날 논의된 세부 실천과제들을 보완하여 4월말까지 '2024년 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

윤근수/기자

부산시, '크루즈선 4척 동시 입항' 최초 유치!

4.3. 럭셔리급 크루즈선 4척 동시 입항

부산시는 오늘(3일) 크루즈선 4척이 부산에 최초로 동시 입항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크루즈선 유치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부산항만공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노력해 4척의 크루즈선이 동시 입항하는 성과를 거뒀다. 크루즈선 3척 동시 입항 사례는 어제(2일)를 비롯해 과거에도 종종 있었으나, 4척 동시 입항은 이번이 최초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에 입항하는 4척은 ▲월드와이드 노선 ▲1박 2일 체류 등의 럭셔리급 크루즈선들이다. 입항하는 4척은 ▲부산 첫 방문인 세레나데 오브 더 씨즈(SERENADE OF THE SEAS, 9만t급, 2,700명)를 비롯해 ▲140여 명의 월드와이드 노선 중 1박2일(4.2.부터 4.3.)을 부산에서 체류하는 씨번 씨전(SEABOURN SOJOURN, 3.2만t급, 470명) ▲럭셔리 급의 실버문(SILVER MOON, 4만t급, 690명) ▲르 소레알(LE SOLEAL, 1만t급, 200명)이다.

관광객 대상 '크루즈 관광도시 부산 강연'을 진행했다. 부산관광협회는 크루즈선들의 입항부터 출항 전까지 개별관광객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소 운영, 부산역까지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방문객 수용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크루즈선 내 방문객들은 크루즈선 출항 전 부산의 주요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해당 크루즈선의 탑승객들은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로, 이들은 해동용궁사, 자갈치시장,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계획이다. 박근록 시 관광마이스국장장은 "이번 크루즈선 4척 동시 입항을 계기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침체됐던 크루즈 산업을 다시금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크루즈선을 부산으로 유치해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물론,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공휴일 특별체험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 진행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공휴일 특별체험으로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을 2024년 4월 6일

토요일에 진행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스스로 의지를 표하는 시민권리에 대하여 인지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획된 특별 체험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박물관이 갖는 고유한 기능에 교육이 결합되어, 체험을 중심으로 비형식적인 교육을 관람자들에게 선사한다. 때문에 어린이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교육 외적인 부분에서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다원적 접근을 시도하며 노력하고 있다. 그중 이번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 특별체험은 사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의성을 반영한 체험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와 교과 역량인 시민의 자질 함양에 주목하여 기획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투표의 과정을 경험하며 사회 참여의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우리도 투표를 연습해요! 내가 뽑는 어린이박물관 대표 전시는?"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박물관에 방문하여 전시장을 돌아다니며 후보들(1층 5개, 2층 4개, 3층 5개의 전시관 총 14개의 후보)을 확인하고, 투표소에 방문한다.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 후, 선거의 4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몸으로 체험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투표 결과는 1주 후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누리집 및

SNS 계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할래?! 우리의 어린이박물관'은 4월 6일 토요일 경기도어린이박물관 1층 로비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14: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박물관 입장권을 별도로 예매해야 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방문하는 만 3세 이상의 어린이가 투표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송문희 관장은 "어린이들이 투표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어린이들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으로 변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한강공원 '도시 갤러리'로 변신... 서울시, 조각작품 전시해 '흥' 돋운다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접하며 힐링, 눈이 즐거운 한강 맞볼 것으로 기대



한강공원이 '도시 갤러리'로 변신한다. 4일부터 11월까지 한강변을 산책하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 곳곳에 설치된 다채로운 조각품과 한강의 경치가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된 한강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2024 한강 '흥' 프로젝트 조각작품 순환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 '흥' 프로젝트는 서울시 '그레이

트 한강 프로젝트' 핵심전략 중 '매력이 가득한 한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와 사단법인 케이스컬처(K-Sculpture) 조직위원회, 크라운해태제과가 협업해 2021년부터 매년 한강공원 일정 구간에 조각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올해는 독성을 제외한 10개 한강공원에서 4회에 걸쳐 전시회가 개최되며, 1개 한강공원에 30점씩, 총 300점의 조각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서울의 명소인 한강 전체를 조각작품으로 형상화한다는 의미를 담아 '한강 조각으로 빛다'를 주제로 마련됐다. 독성 한강공원에서 2024년 조각작품 순환전시회는 2024년 추진되는 전시 '걸음의 머물다'가 개최되며,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대조각 40점을 만날 수 있다. 먼저, 1차 전시는 4월 4일~5월 29일 반포한강공원 1주차장 인근 산책로, 강서한강공원 가족 피크닉장, 망원한강공원 내 서울함공원에서 개최되며, 공원당 30점씩 총 90점의 조각작품을 만날 수 있다. 대표 작품으로는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포근하게 기대어 쉴 수 있기를

소망해 반으로 접힌 쿠션을 일직선으로 세운 모양의 Harmony(하모니, 최종애 작), 생명이 발아할 때의 순간을 세련된 형태로 표현한 추상조각 Eco Flowing1(에코 플로잉1, 김태수 작), 스테인리스 스틸에 압력을 가해 융솟음치는 물의 형상을 표현한 Pressed Drawing(프레스드 드로잉, 심병건 작) 등이 있다. 2차 전시는 6월 3일~7월 29일 여의도.이촌.잠원한강공원에서, 3차 전시는 8월 1일~9월 29일 잠실.광나루한강공원에서, 4차 전시는 10월 1일~11월 30일 양화.난지 한강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산책이나 피크닉 공간으로 여겨지던 한강공원을 갤러리로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한강의 경치에 더해 화려한 조각작품까지 감상하면서 눈이 즐거운 한강을 맞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시민들이 미술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일상 속 쉽게 접할 수 있는 한강공원에서 예술성이 뛰어난 조각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한강과 어우러진 다채로운 조각품을 감상하며 가족.친구.연인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이 힐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청명·한식 기간 대형 산불 방지 온힘

주민 대피체계·담뱃불 투기 단속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논의



전라남도는 2일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을 맞아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한 '산불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불철 기상전망에서 강풍특보가 다소 많은 편으로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대비 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청명·한식 기간에는 성묘객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건조한 날씨 속에 영농 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행위가 급증하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전남도 산림자원과 및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순천국립관리소, 순천경찰서, 한국전력공사순천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중점 추진대책을 공유했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와 특수진화대

등 진화자원 동원, 산불 인명피해 우려 지역 주민 대피 체계 구축, 주택과 시설 보호, 차량용중 등 담뱃불 투기 단속 등 주요 협력 내용을 논의했다. 또한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 강화와 산불 취약지 중심 예방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산불 감시인력 1천34명을 투입해, 불법 소각 취약 시간대(오전 10시~오후 8시)에 산림 연접지와 묘지 주변, 주요 등산로 등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불법 소각 과태료 부과, 현수막 설치와 마을 방송을 확대해 도민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청명·한식 주간(4월 1일~4월 10일)에 전남지역에선 산불 7건이 발생해 668ha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특히 4월 3일에는 순천과 함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정찬균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매년 3~4월은 대형·동시다발 산불 피해가 많은 시기로, 관행적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와 성묘객 실화가 없도록 도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소방, 경찰, 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경상남도의회 “정규현 의원, 2일 사천 곤양초등학교 본관동 개관식 참석”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로 창의적인 미래 교육 토대가 되는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현(국민의힘, 창원9)의원이 2일 사천 곤양초등학교 본관동 개관식에 참석했다.

곤양초등학교 학교시설은 40년 이상 노후되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2년 그린스마트미래교육 사업으로 67억원 상당의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4월 2일 개관하게 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규현 의원을 비롯해 김규현 사천시의회 부의장, 김성태 총동장회장, 경남도교육청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송숙경 사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정종우 곤양면장, 김현지 곤양초등학교 교장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개관식에서 “사천 곤양초등학교는 1911년 설립되어 113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지만, 그동안 40년 이상 노후된 본관동에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마음껏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번 본관동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간이 그 사람의 사고를 결정한다는 말과 같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바뀐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통해 한 단계 더 뛰어난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해 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곤양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위해 노력해주신 교직원,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그리고 곤양초등학교와 같이 낙후된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재현/기자



안양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안양시의회는 지난 2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의 검사를 수행할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3회계연도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 위원은 대표위원인 김정중, 광동윤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중(공인회계사), 안성진(공인회계사), 홍현선(세무사), 김기영(세무사), 이명재(세무사) 총 7명이다.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결산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한 위원들은 검사 기간동안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예산집행 및 재정운영에 있

어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별 사업집행의 적정성과 목적에 적합한 집행,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게 되고, 전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 및 개선됐는지 여부도 검사하게 된다.

최병일 의장은 “안양시민을 대신해 안양시의 연간예산과 재정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결산검사에 임해달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5월 말 결산검사 보고회를 통해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결산검사의 결과물은 6월 1차 정례회 결산심사 승인 시 의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우용/기자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 정읍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이끌어

정읍 등 3개 권역..사업비 4억 8천만원 확보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이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에 정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승식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 과정에서 정읍 지역에는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많아 의료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정읍을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전주권 전주 예수병원,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정읍권 정읍 아산병원 등 총 3개소를 선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분부 산하에 응급, 외상 등 지정센터와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할 수 있어 양질의 필수 의료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

임 의원은 “질병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 희망을 주는 것은 새 생명을 부여한 것과도 같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을 잃어 희망이 없는 의료약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하는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군산, 익산 이외 지역은 산후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나서고 있어 시군별 출산 및 양육 기반 시설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1.2%로 조리원 이용은 산모 대부분이 이용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지만,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높은 비용과 감염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사회

적 요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임 의원은 지난해 4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전라북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에 따른 첫 설립지역은 남원시와 정읍시로 각각 70억 원을 투입해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추진하고 있다.

임승식 의원은 “출산을 저하 문제는 열악한 의료서비스의 영향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과 같은 출산 친화 인프라는 출산·산후조리 취약지역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남출/기자



의정부시의회,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1일 경인대학교 기념관에서 개최된 ‘2024년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다.

의정부기독교연합회(회장 조행래 목사)가 주관한 연합예배에는 최정희 의장을 비롯한 시·도 의원, 시장, 의정부기독교연합회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예배는 인도, 찬송, 기도, 성경봉독, 특별찬송, 특별기도 등의 순

로 진행됐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기렸다.

최정희 의장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의 참뜻을 되새기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의 희망과 빛이 되는 모든 성도분께 감사드린다”며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역북초등학교·문정중학교 참여

정읍 등 3개 권역..사업비 4억 8천만원 확보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에 2일 역북초등학교 4학년 25명, 문정중학교 1학년 22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의회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박인철 의원,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을 만나 의회에 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의의회를 개최해 「스쿨존 어린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학생들이 의장, 의정팀장, 의원 등 역할을 나누어 정책이 결정되기 위해 거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을 만난 박인철, 장정순 의원은 “학생들이 지방자치를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용인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구성 단체를 대상으로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김범상/기자



김기덕 서울시의원,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 수는 증가했으나, 자치구별 종목 단체 수는 여전히 2배 차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별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수 총 745곳 가운데, 38개 이상의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를 보유한 강남 3구(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에 비해 서남권인 구로구, 금천구의 단체 수가 20개 이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이후, 작년과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자치구별 지속적인 격차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지난 2월 2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체육(생활체육) 종목별 현황(’24.1.15.기준)’을 분석한 결과, 생활체육 종목이 가장 많이 설치된 자치구는 강남구, 송파구(39개)로서, 하위권을 보인 금천구(20개)와 구로구(18개)와는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에 이어 2023년에도 자치구별 생활체육 종목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도 불

구하고, 올해 2024년(’24.1.기준) 역시 1년 전과 동일하게 자치구별로 2배가량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당시 생활체육 설치 종목 현황의 경우, 금천구(24곳), 구로구(21곳)의 시설 수가 2023년은 각각 20곳, 2024년은 금천구(20곳), 구로구(18곳)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강남구는 ’18년 33곳, ’23, 24년은 각 39곳으로 자치구별 생활체육 종목별 차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대비 올해 25개 자치구별 회원종목단체 수는 745곳으로 동일하나, 클럽 수는 249곳으로 감소(’23년 8,945곳, ’24년 8,696곳)한 반면, 동호인 수는 12,716명 증가(’23년 약 37만 1천, ’24년 약 38만 4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한 문제가 2024년에도 반복적으로 야기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특히 하위권 종목

단체 수를 보인 서남권의 금천구, 구로구의 경우, 동호인 수가 전체 자치구별 인구수 대비 5% 내외에 그치고 있어, 생활체육 단체 수는 물론 참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4년 기준,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수 총 745개, 총 114개의 종목 가운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내 20개 이상 설치된 협회는 총 17곳(게이트볼협회, 배드민턴협회, 농구협회, 축구협회, 태권도협회, 파크골프협회 등)이며, 10개 이상 20 미만 설치된 협회는 총 12곳(수영연맹, 체조협회, 육상연맹 등), 10곳 미만 설치된 협회는 총 85곳(바둑협회, 스쿼시협회, 에어로빅협회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시 자치구 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종목은 총 30곳(레슬링협회, 하키협회, 핸드볼협회, 마라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의원은 총 114개 종목 가운데, 25개 자치구 중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마라톤, 전통무예, 격투기, 하키, 패러글라이딩 등 30곳의 종목과 관련

으로 고려한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확대는 물론,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획기적인 예산투입과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생활체육시설의 자치구별 격차 최소화를 위한 연영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종목의 협회별 단체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근 베이비부머로 인한 노년층의 증가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중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최근 생활체육 종목별 단체수 중, 파크골프의 단체 수는 자치구 21개소로서 높은 편에 속하나, 여전히, 서울의 중심인 종로, 중구, 동북권에 위치한 성북, 강북구에는 파크골프장이 단 한 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에 시대적 변화는 물론, 은퇴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노년층을 고려하여, 선호도 및 참여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한 지자체별 파크골프장 확대는 물론, 사용자의 수요를 고려한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획기적인 예산투입과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생활체육 활성화는 병원 하나 더 짓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향후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 확대 및 자치구별 체육회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초등 저학년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은?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능력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읽기·쓰기·셈하기 능력에 대한 담임교사의 진단 및 이후 보정지도 양상을 파악하고 이후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보고서 '초등 저학년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한글해득을 포함한 읽기, 쓰기, 셈하기 능력은 이후 교과 학습을 위한 기초 도구이며 1~2학년 시기에 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학습 부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초등 저학년 시기에 나타나는 기초학습능력의 발달 양상을 탐색하고 관련 정책 및 현황을 분석하여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기초학습능력의 진단 및 보정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관리자, 학부모 및 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초학습능력 진단은 주로 1학년 전 기간과 2학년 1학기 초에 실시하고 있었고, 진단도구는 주로 공문에 의한 권장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청의 규모가 클수록 학습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2학년보다는 1학년에서 보정활동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자녀의 쓰기 능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교육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직접 지도하고 있었다. 교사 및 관

리자는 느린 학습자, 다문화 학생 지원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수업 일과 부담, 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인한 가정과의 연계 부족을 어려움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현재의 기초학력 정책은 진단 평가를 통해 최저 기준선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이라는 3단계 안전망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최저 기준선을 넘는 학생들은 추가적인 지원에서 소외된다는 점, 둘째, 교실 안, 학교 안과 밖의 지원 정책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연구책임자(연구위원 김현미)는 기준선을 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정' 활동 중심 지원과 기준선을 넘어서 학생이 보다 높은 수준과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상' 중심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은 교실 안→학교 안→학교 밖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의 안전망을 교실을 중심으로 학교 안과 밖에서 동시 작동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 교실 안 : 저학년 전문교사제, 전수 평가, 다양한 진단 도구 개발, 교과서 개선,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맞춤

형 교수·학습 자료, 교수·학습 자료 플랫폼 고도화 등

- 학교 안 : 돌봄 교실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프로그램 운영, 지도 전문성 강화

- 학교 밖 : 기초학습지원센터 기능 확대, 가정과의 연계 및 학부모 지원 유도방안, 전문 기관의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

- 세 영역 교사 : 교·사대생을 활용한 도움 교사제 도입, 읽기 전문가 양성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 지역 발전 추진

여러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폐교활용 문제 논의 및 공감대 형성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임태희 교육감과 여러차례 폐교활용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 및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난 27일, 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및 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연천군 관내 폐교 활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의원은 "수차례 임태희 교육감과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교육 현주소에 대해 논의하며 ▲신설학교는 고사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여러 학교를 한 곳으로 모아 적정규모의 학교

로 통합하는 실정과 그에따른 폐교 및 통합하는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및 후속조치의 미흡한점,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소멸을 막을수 있는 방안, ▲지역 내 교육 및 문화 인프라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이에 "도 교육청 및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본격적으로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예로 폐교인 구)대광중학교와 옥계초등학교를 학생 및 지역 주민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내 교육·문화 인프라 부재 해

결을 위한 활용사업으로 공유학교(예술, 스포츠 활동 공간), 창업학교(창의적 진로·직업 체험 공간),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 및 지역인구 유입을 위한 주거 공간 등 체류형 생활인구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활용방안 및 모델을 수립중이다.

윤종영의원은 "지역내 폐교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타운과 지역체류형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예산 확보, 공유재산 협의 등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죽음의 도로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안전 확보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양평군 서종면 수입리~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개통을 환영했다.

지방도 391호선 야밀고개 위험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해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구되는 곳으로 1995년 이후 이 구간에서만 교통사고로 10여명이 목숨을 잃는 등 죽음의 도로나 다름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를 2010년에 실시설계에 돌입하고, 2018년에 공사에 착공했으나 당초 2022년 준공 목표가 계속 지연되어 이기형 의원은

해당 사업에 주목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022년 결산 당시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 "당초 설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연약지반이 나와 공기연장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급자재 무단반입, 검사증명서 누락, 자재 반입내역과 검사증명서 불일치 등 현장 관리감독 부실을 밝혀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기형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공사에도 기다려주신 도민분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개설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와 정책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심항공교통 조례' 제정 위한 입법정책토론회 열어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위해 항공교통 전문가 대거 참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1일, '경기도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항공교통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도심항공교통(UAM) 산업과 기술개발, 정책·제도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준환 의원은 좌장으로 활동했으며, 발제는 LG유플러스 미래모빌리티기술팀 송민규 책임연구위원과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및기계공학부 배재성 교수가 맡았다.

먼저, 송민규 책임연구위원은 UAM 교통관리체계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기도는 비행금지·제한구역과 김포공항·수원공항 등이 포진해 있어 UAM 설계를 위한 공역 조건이 복잡한 상황"이라며 회랑 설계를 위해 군 기관과 서울지방항공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버티포트 입지 마련을 위해 시군의 용도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이어 배재성 교수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안전 인증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첨단모빌리티·항공우주 교육

벨트 구축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UAM연구팀 김명현 팀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미래모빌리티본부 김진욱 연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도심항공항행정책실 이승근 실장,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정한규 과장, 경기교통공사 민경선 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명현 팀장은 "도는 실증구역에 이어 시범운용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회랑과 운항 관리, 보안, 안전 등의 제도를 정립해야 한다"며 "회랑 설계 이전에 버티포트 등 인프라 인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김진욱 연구위원은 조례안에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하여 UAM 활용 주력 분야(여객수송, 화물배송, 공공[재난·응급], 레저·관광 등)를 선택·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근 실장은 전문인력 양성 시 인증 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여 항공기·회랑 등 설계 초기 단계부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체 개발에 집중된 재정지원을 버티포트 인프라 구축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한규 과장은 "안타깝게도 K-UAM 그랜드 챌린지에 적용된 기체는 모두 해외 업체에서 만든 것"이라며 "UAM 국산화를 목표로 R&D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실증사업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민경선 사장은 UAM 상용화를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UAM 산업이 아닌 UAM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수정·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통국도 함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31개 시군에 동일한 '첨단항공교통운용 개념서' 제작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 입안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도심항공교통의 선두주자,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센터 비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허형 한국항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이필규 경기도 경제부지사 협치2보좌관, 최영주 고양특례시 자족도시실현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여주시, 2024년 상반기 여주시 5060 역량강화 프로그램 학습자 모집

여주시 어르신 건강코디네이터 양성과정, chatGpt 활용 코딩 교육강사 양성과정

여주시는 여주시 50세 이상 65세 미만 베이비부머(신중년)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여주시 5060 역량강화 프로그램(여주시 어르신 건강코디네이터 양성과정, chatGpt 활용 코딩 교육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여주시 어르신 건강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고령층이 많은 여주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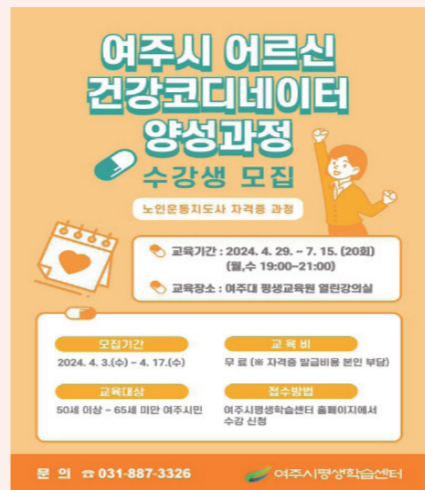
로그램중에 하나로, 향후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계획됐으며, 노인운동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chatGPT 활용 코딩 교육강사 양성과정은 신중년 세대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자 chatGPT 사용법과 생성형 AI를 통한 코드 자동생성 방법을 학습 목표로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교육분야에 활용

할 수 있는 강사 양성 및 코딩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교육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교육장소는 여주대학교(평생교육원, 창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이다. 프로그램 접수 및 자세한 교육과정은 여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해 달라"

적극행정 우수공직자6명 만나 격려

이재준 수원시장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들을 만나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집무실에서 조경애 저출생대응팀장, 최영희 시민청 베테랑팀장 등 적극행정 우수공직자 6명을 격려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베테랑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복합·고질 민원을 윈스팀으로 해결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시민을 위해 애쓰신 직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적극적으로 일한 직원은 확실하게 보상해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과 공직자들은 적극행

정 실천을 독려하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적극행정 실천을 결의했다.

수원시는 5개 분야 2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실행계획 주요 내용은 ▲수원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김범상/기자



이천시, 순찰 중 큰 화재 막은 경찰관에 표창장 수여

이천시는 지난 2일 이천경찰서의 김병욱 경위와 서준현 경장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하고자 표창장을 수여했다.

김병욱 경위와 서준현 경장은 지난 달 8일 오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하던 중, 이천시 장호원을 한 빌라 건물 외벽으로 번지는 화재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이동해 순찰차량에 비치된 소화기와 인근 상가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안내방송 및 사이렌을 통해 주변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적인 인명 피해를 예방했다.

김경희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빠르게 대응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이들의 모범적인 행동을 인정하기 위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경위와 서준현 경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표창장 수여에 대한 영광과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경찰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해빙기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품질검수 현장 점검

광주시는 관내 공사 중인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대비 공공건축물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품질검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을 병행해 건축, 토목, 건설 안전, 기계, 전기, 소방 분야 민간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광주시 품질검수단이 점검반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내 경계부 사면, 옹벽·지하 터파기 등 안전성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 방지 장치 등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의 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또한, 건설현장 시공 상태 및 감리업무 실태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수단의 지도 자문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은 건설현장 관계자

에게 즉시 보완 및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했으며 차기 현장 점검 시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해빙기 대비 철저한 점검과 불안정 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물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더불어 공공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외부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시민들의 안전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8개소는 ▲광주 종합운동장(주경기장) ▲반다비 체육센터 ▲구)청사 복합건축물 ▲미래전략사업본부 청사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고산지구 문화누리센터 ▲송정동 구시청사 도시재생뉴딜사업(어울림플랫폼) ▲송정동 우전계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재생어울림센터, 송정문화센터) 현장 등이다.

김범상/기자



2024년 화성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하세요

화성시, 산모에 경기도 G마크 및 무항생제 인증된 축산물 꾸러미 지원

화성시가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국내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연내 출산한 산모 중 출산한 아이를 화성시에 출생신고 한 산모에게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꾸러미는 5만원 이내 경기도 G마크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한우·한돈 등 우수 축산물로 구성된다.

지원 규모는 산모 6,550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연말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꾸러미 3가지 구성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병상 축산과장은 "우수 축산물을 꾸러미 지원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모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용인특례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FAB착공 대비 종합대책 회의 개최

황준기 제2부시장 주관으로 시 관계부서와 지역 유관기관, 사업시행자 모여 FAB착공 대비책 검토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팹(FAB·생산라인)' 착공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과 인허가, 숙박·주차장, 지도단속 분야의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T/F 회의를 지난 1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처인구청장, 미래산업추진담당, 지역 내 유관기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시행자 관계자들이 모여 'FAB' 착공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했다.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착공이 예정된 'FAB' 공사에 따른 건설근로자 유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시는 공사 과정에서 최대 1만 8000명의 건설근로자가 용인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를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FAB' 착공 전까지 ▲주요 교차로 신호체계 정비 ▲보개원사로 임시차로 확보 ▲공기단축을 위한 보상업무 전담인력 배치 ▲숙소와 주차장 인프라 확보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방안을 종합적으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산업단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주차차, 노점상, 폐기물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불법사행 정비영역을 별도로 발주하고, 단속요원과 폐쇄회로(CC)TV를 확충해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에 참석한 사업시행자 관계자들도 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 중 우회도로와 '지방도 318호선' 임시개통, 근로

자 숙소와 단계별 거점주차장 마련, 노점상과 불법 주차차 차단을 위한 헬스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의 대비책 구축을 약속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을 넘어 대한민국에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며 "FAB착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 계획들을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살피고,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사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실무회의 등을 마련해 계획들을 보완해달라"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 3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FAB 착공을 위해 종합대책 T/F를 구성하고, 지난 3월 13일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현장 경험 등을 청취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관계부서와 사업시행자 간 실무회의와 건축허가 T/F, 보개원사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논의해왔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마을세무사 상담 6.3% 증가...올해도 전통시장, 골목상가 찾아간다

제5기 마을세무사 11명과 세무상담 본격 운영

시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안양시의 '마을세무사' 제도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9년째 꾸준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는 시가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의 시민과 1대 1로 연결해 무료로 상담해 주는 제도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323건으로, 전년(304건) 대비 6.3% 증가했다.

상담 내용별로는 양도세, 부가세 등 국세 관련 상담이 85%(274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상담 유형별로는 전화(280건), 방문(31건), 메일(6건)과 팩스(6건) 순으로 많았다.

시는 올해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세무사 11명을 제5기 마을 세무사로 위촉한 바 있다.

마을 세무사는 국세, 지방세 관련 상담은 물론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청구금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 청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해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 신청을 하면 전화, 팩스, 메일 등을 통

한 상담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도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는 마을 세무사가 전통시장, 복지관, 지식산업센터 등 세무 상담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절세, 세금 신고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코로나 발생 후 중단됐던 현장 세무상담은 지난해 4월 재개됐으며, 지난해 9개월 동안 총 244명을 대상으로 현장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현장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시 범무사도 동행해 세무상담 뿐 아니라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마을 세무사 제도가 세무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시행 9년째를 맞이했다"면서 "시민들이 생활 속 세무 고민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성남시가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

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5종 보험 상품 가입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 도와

행한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며, 지원 규모는 50개사 내외에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

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총 105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한 바 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는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부터 자립, 정착까지 적극 지원한다. 하반기 개관하는 내일꿈제작소를 기점으로 청년 거점 공간 운영을 강화하고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 권리 5개 분야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의 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청년주인공의 꿈을 주제로 한 영화에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은 꿈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꿈을 잃지마'라는 대사가 있다"며 "청년들이 고양시를 무대로 주인공이 되어 도전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내일꿈제작소를 거점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을 마련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거점 공간 될 내일꿈제작소...하반기 개관 준비 '착착'

▲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에서 청년 스타트업에 관해 발표 중인 이동환 고양시장

지난 1일 청년 취·창업 생태계의 거점이 될 생활 SOC복합시설 내일꿈제작소가 화정동에 준공했다. 고양시 미래산업을 위한 청년인재들을 육성할 내일꿈제작소는 임시 운영을 거쳐 하반기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2019년 4월 착공한 내일꿈제작소는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화정역 인근에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들어섰다. 연면적 약 6,854㎡로



고양시, 청년 취업부터 정착까지 적극 지원...미래세대 키워낸다

이동환 시장 "청년들은 고양시를 움직일 주인공...꿈 펼치도록 적극 지원"

등과 연계해 자생력 있는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내일꿈제작소 운영은 현장 중심의 청년정책 거점 공간 기능 강화를 위해 시 청년정책팀이 이진해 직접 맡는다. 화정터미널에 위치한 청년 취업·소통공간 청취다방도 내일꿈제작소로 이전해 예산을 절감하고 청년지원 연계성을 확보한다.

시는 내일꿈제작소와 청년일생학교, 28청춘창업소, 고양산업진흥원 등을 연계해 연속성 있는 청년 취·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향후 성사혁신지구, 지식산업센터, 일산테크노밸리 등에서 성장,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바이오, 마이스, 방송영상 분야 등 고양시 주력 산업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주거안정 지원...청년 참여 활성화

▲ 내일꿈제작소 조감도

고양시는 안정적인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2024년 고양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했



다. 일자리·교육·주거·복지·참여 권리 총 5개 분야에서 50개의 청년 사업을 추진해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지역경제와 청년이 상생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에 총 6억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한다. 39세 이하 청년 채용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6개월 이상 근무 시 근로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자기개발비와 직무교육,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초기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청년 초기 창업자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난해 17명에게 총 4.3억원의 보증을 실행했으며 올해도 출연금 소진 시까지 지원을 계속한다.

청년층의 취업·진로를 지원하는 '청년일생학교'는 지난해 2기에서 올해 총 8기로 확대해 청년 120명의 취업을 지원한다. 시 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바이오, 마이스, 방

▲ 청년 진로탐색 나날기학교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청년 20가구에겐 '고양 청년동지론'으로 전세·반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추천과 이차지원을 최대 4년까지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해 월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한편 이달 말부터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5기 청년정책협의체'를 모집한다. 하반기에는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청년주간행사를 마련해 명사특강, 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청년문제와 관련한 홍보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꽃내음 가득한 전남도에서 봄나들이 즐기세요

전남도, 섬진강벚꽃길·불갑사·관매도·함평천지길 등 추천

전라남도가 4월 완연한 봄을 만끽할 여행지로 곡성·구례 섬진강벚꽃길, 영광 불갑사, 진도 관매도, 함평 천지길을 이달의 관광지로 추천했다.

섬진강 상류 곡성 섬진강 전문대에서 시작하는 섬진강 벚꽃길은 강을 사이에 두고 구례구역까지 이어진다.

이 벚꽃길은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됐다.

섬진강변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벚꽃 가로수가 터널을 이뤄 훑날리는 벚꽃잎을 감상하며 풍광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강 중 하나로, 은어를 비롯해 30여 종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어 주변 식당에선 은어회와 은어구이, 참게를 곁들인 민물매운탕 등도 맛볼 수 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진도 관매도는 해식절벽과 해식동굴이 아름다운 섬이다.

특히 넓은 유유 농경지를 활용한 유채꽃밭은 매년 상춘객으로 가득하다.

진도 일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유채꽃 축제가 열린다.

사생대회, 사진공모전, 떡메치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고운 모래사장 해변과 드넓은 소나무 숲, 다양한 설화가 담긴 방아섬, 할미중드랭이굴, 하늘다리, 서들바굴폭포 등 관매도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8경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또한 툇칼굴수, 툇짜장 등 진도의 정취를 느낄 음식을 맛보며 오감 만족 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영광 불갑사부터 불갑수변공원까지 이어지는 벚꽃길도 벚꽃 명소다. 이 길목의 벚꽃나무 가로수는 터널을 이뤄 드라이브를 즐기며 벚꽃을 감상하는 상춘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불갑수변공원은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감상하며 산책하기 좋아 지역 주민도 인정하는 산책 명소다.

황금빛 노을 풍광이 아름다운 백수해안도로 가로 벚꽃도 아름답다.

16.8km의 해안도로는 기암괴석, 광활한 갯벌 풍경과 함께 훑날리는 벚꽃을 감상하며 드라이브하기 제격이다.

해안도로 아래 3.5km 해안 노을길과 노을 전시관을 둘러보며 서해안 풍광 여행의 낭만으로 만끽할 수 있다.

함평천지길은 화양근린공원과 생태습지로 조성된 함평천생태습지, 도시공원 현대인 엑스포공원을 연결하는 6km의 도보길이다. 삼나무 숲을 따라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수산봉 정상에서 함평읍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수산봉 숲속 둘레길, 나비다리, 낙우송길, 장미정원, 소나무길, 등나무길 등 다양한 꽃과 나무로 꾸며진 정원을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함평엑스포공원에서는 오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린다. 형형색색의 꽃밭을 날아다니는 나비를 감상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나비 날리기, 나비 손수건 만들기, 비눗방울놀이, 젖소목장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축제를 알차게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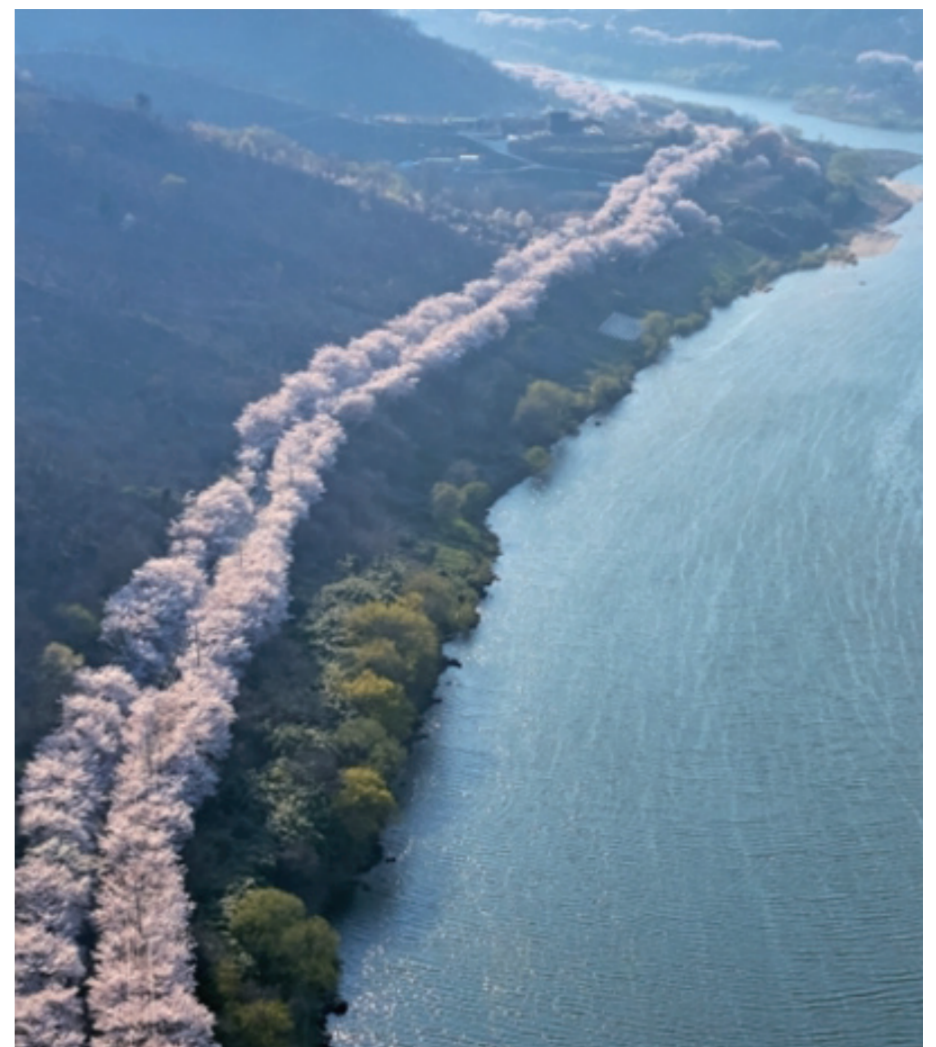
관광지, 체험·교통·숙박·맛집 정보 확인과 예약·결제 가능한 전남관광플랫폼(JNTOUR)을 이용하면 전남을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남도 숙박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전남도·광주시 외 주소지를 둔 관광객에게 숙박 요금을 할인하는 이벤트로,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시설(1천706개소) 이용 시 1박 기준 10만원 이상은 4만 원,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원 미만은 2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전남은 한반도의 서남부에 위치, 산림·해양 자원이 풍부해 계절별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며 "화사한 봄꽃과 어우러진 전남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완연한 봄날씨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함평군 손불면, 봄바람처럼 따스한 온정의 주거환경 개선 '앞장'

손불면지사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협력, 지적장애 가구 주거 개선

전남 함평군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내 지적장애 가구를 방문해 욕실 개선, 도배·장판 교체, 집안청소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손불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조직된 민·관 협력 봉사대로, 이번 봉사활동에서 손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도움을 받은 장애 가족은 "이전까지는 벽지·장판에 곰팡이가 생겨도 참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백형갑 민간위원장은 "동네의 소소한 어려움

이 발생할 때마다 자기 일처럼 삼피고 앞장서는 복지기동대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복지기동대의 이웃사랑 봉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성풍 복지기동대장은 "앞으로도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두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불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자발적 민간 참여 단체로 지역 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불편 해소 등 복지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주민의 미래 생활 기반 마련으로 삶의 희망을 함께 지원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 봉사단체이다.

김영진/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강도 높은 봄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지역'을 사수하고 있다.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에 31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주시는 '제로(0) 발생'을 유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나주시, 봄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총력

11개월간 'AI 청정 나주' 유지

나주시는 가금 1139만5000수 사육이 가능한 전남 최대 가금 생산지다. 전국 오리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플루엔자 방역이 쉽지 않은 환경임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방역체계를 가동해 11개월간 '청정 나주'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농가 55호를 사육제한했으며, 농장입구 및 진입로·철새도래지·산란계 밀집단지를 상

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장 자체방역을 위해 소독약 및 생석회·조류기피제 배부, SNS·카카오톡 홍보, 농장 전담 공무원 105명 배치, 재입식 농가 대상 3단계 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아울러, 가금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 갈아신기, '축사환경·소독의 날'(매주 수요일) 집중 소독, 가축 재입식 전 청소·소독

과 시설 점검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과 철새 북상 시기가 겹치면서 산발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AI와 같은 재난형 질병 차단은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평상시에도 축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남원시 추어 및 식품산업 관련분야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4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 개최

남원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남원추어 CEO 육성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하나인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남원추어 차세대 CEO 아카데미는 남원시와 남원추어식품클러스터사업단의 3단계 추어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중 2단계 교육으로 남원시의 미래를 책임질 남원시 청년 CEO들의 네트워크 확장 및 경영능력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지난 4월 2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2024년 아카데미는 실무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2024년 식생활 트렌드와 차세대 CEO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주)이마트 가공식품분야 임원의 특강을 시작으로 SNS 홍보마케팅을 위한 촬영편집기법, 온

라인마케팅 실무, 사례중심 노무교육, 세무회계 실무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들의 네트워킹 확장을 위해 교육생 참여범위를 추어산업에서 식품산업으로 확대하고 수업 외에 교육생들간 모임을 지원하고,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정희 사업단장은 "평균나이 31세인 젊은 교육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 차세대 CEO들의 경영능력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고, 유수경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은 "교육생들이 남원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순천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연향들 최종 확정..입지 논란 마무리 지어

월 2일 입지 결정·고시...입지선정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 적법하게 마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연향동 814-25 일원을 최종 결정·고시했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주민친화시설을 갖춘 지역의 명소로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연향동 814-25 일원을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최종 확정하여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연향들 일원을 공공자원화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시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기, 악취, 수질, 토양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략한 경영합평가를 실시했다.

연향동 유역환경영향과도 환경영향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공공자원화시설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또한 확인받았다.

입지 결정·고시에 따른 입지 지형도

이승준/기자

진도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사례관리 위한 전산교육 실시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읍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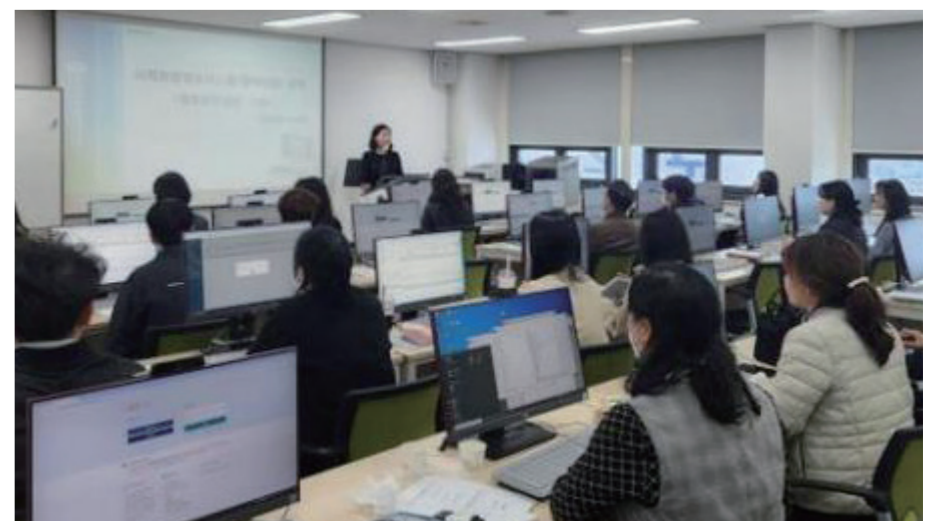
진도군이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빈틈없는 사례관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 사용자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롭게 도입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체계 '행복e음'의 주요 내용과 초기상담, 신청정보등록, 효과적인 통합사례관리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특히 통합사례관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등 복지 체감도 향상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초기상담부터 종결시까지 10단계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자원의 통합적인 연계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게 된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먼저 실시했던 읍면의 찾아가는 복지교육과 연계해, 이번에 실시한 전산교육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한다"며 "지역의 복지위기가구를 위해 소외되고 차별받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경북도, 임신 희망부부 건강관리 지원 늘린다!

1일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관리 지원' 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검사 등 최대 13만원,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 정밀형태 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제공한다.

검사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뒤 전국에 있는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가능하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를 대상으로 냉동난자 해동과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부에게 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는 달리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황영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으로 건강한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는 이달 1일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



2024 대구마라톤대회, 차 없는 날 "도시철도 이용하세요"

교통통제로 인한 내 집 앞 우회도로 확인

다가오는 4월 7일 2024 대구마라톤대회 개최로 인해 대구스타디움 일원과 수성구, 중구, 동구 등 도심 일대 교통이 통제된다.

2024 대구마라톤대회는 대구시 전역을 한바퀴 도는 순환코스로 변경돼 교통통제 영향권이 넓어져 당일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대회 당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4월 7일을 대구시민과 함께하는 '차 없는 날'로 운영하며 시민들께 가급적 도시철도 이용을 당부드린다.

당일 생업 등을 위해 차량 이용이 불가피하신 분들을 위한 주요 지역(지점)별 우회경로를 간략히 살펴보면, 이번 대회는 예년과 달리 대구의 남북 간 큰 교통 물줄기인 신천대로와 신천동로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 효목고가차도, 복현고가차도를 통해 동북로, 무열로 등을 이용한 남북 간 통행이 가능하다.

선수들이 달리지 않는 연호고가도를 이용해 범물·지산동에서 울하 방향으로의 남북 간 이동도 가능하다.

또한 대구스타디움 주변 전면 통제로 인해 수성구 시지·경산에서 만든 방향의 동서 간 우회경로는 고모로를 이용하시면 된다. 동구지역의 대표적 우회로는 해동로와 화랑로이다.

당일 대구공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천대로나 신천동로에서 경대교나 도청교로 우회, 공영교를 통해 공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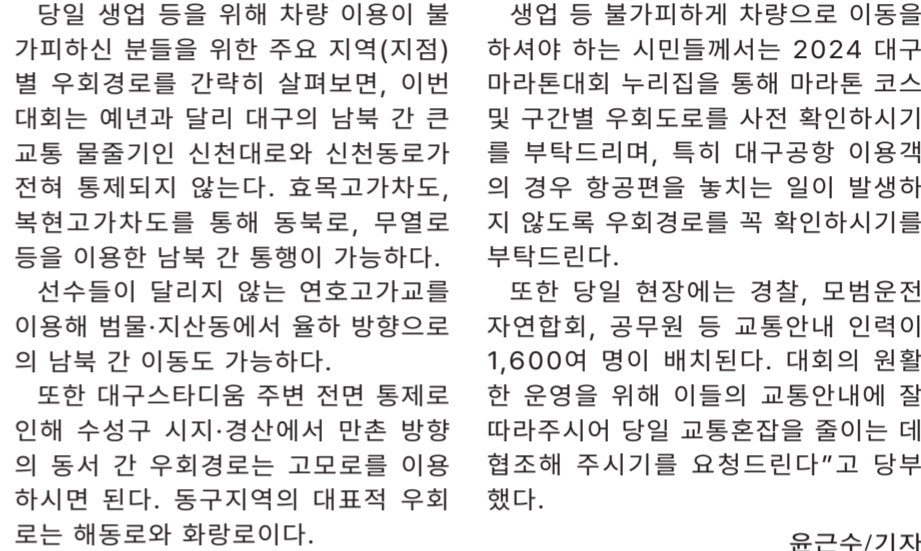
구간별 우회도로의 자세한 사항은 2024 대구마라톤대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올해 코스 변경으로 인한 교통통제 영향권이 넓어져 당일 도심지에 상당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대구시는 다각도로 교통소통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시민들께 당일 차량운행 자제와 도시철도 이용을 적극 요청드린다.

생업 등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야 하는 시민들께서는 2024 대구마라톤대회 누리집을 통해 마라톤 코스 및 구간별 우회도로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공향 이용객의 경우 항풍편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경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현장에는 경찰, 모범운전자연합회, 공무원 등 교통안내 인력이 1,600여 명이 배치된다.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들의 교통안내에 잘 따라주시어 당일 교통혼잡을 줄이는 데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박형준 시장, 부산 디지털산업 육성 위해 '비상경제 AS 현장방문' 나서

4.3. 15:00 디지털산업 기업 2곳(㈜일주지엔에스, ㈜포미트)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이 비상경제 AS 현장방문으로 오늘(3일) 오후 3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 전문업체 (주)일주지엔에스(동래구 소재)와 산업형 메타버스 기술 선도기업 (주)포미트(수영구 소재)를 차례로 찾는다.

'비상경제 AS 현장방문'은 시가 개최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시가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제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마련한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과 현장 소통을 연계해, 지역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가속도를 더할 디지털산업 육성방안을 지역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기업 지원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방문은 박 시장을 비롯해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장 등 디지털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한다.

먼저, 박 시장은 (주)일주지엔에스 방문해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기업 현장을 둘러본 다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솔루션 프로젝트'와 증강현실(AR) 등 (주)일주지엔에스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시연과 설명을 듣고 이들과 지역 내 디지털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주)일주지엔에스는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서비스 개발과 디지털전환 컨설팅 전문 기업으로 특히, 에너지, 제조산업,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능형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주)일주지엔에스는 2011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로, 200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스마트팩토리 구축과 에너지관리시스템, 태양광발전소 조각타자플랫폼, 메타버스 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중소기업용 산업

안전관리솔루션 등을 자체 개발하는 등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주)일주지엔에스가 개발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솔루션'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현장 안전보건관리 프로그램으로, 상대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박 시장은 (주)포미트를 찾아 (주)포미트가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 등 핵심사업과 디지털전환 적용사례에 관한 설명을 듣고 기업 관계자들과 지역 디지털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박 시장은 (주)포미트가 개발한 디지털트윈 기술을 체험해보며, 부산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직접 느껴볼 예정이다.

(주)포미트는 플랜트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 개발 전문기업이자 부산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솔루션 개발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디지털 트윈과 산업형 메타버스 기술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2004년 설립 후 플랜트 3D 모델링과 발전플랜트 생애주기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했고, 2015년에는 발전

소 대상 3D 기반 가상현실(VR) 서비스, 2021년에는 주요 발전사 및 산단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트윈 구축 컨설팅, 2022년에는 3D 기반 산업 메타버스와 다중접속 솔루션 개발 서비스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23년부터 명지 녹산 분산발전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디지털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지역산업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전환(DX) 요소기술을 가진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오늘 디지털산업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안 기술 분야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특히, "(주)일주지엔에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솔루션은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 중소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 솔루션의 확산·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정부부처 등에도 활용을 건의하겠다"라며, "아울러 우리는 지역기업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에 계속해서 힘써 부산이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

청송군은 최근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2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윤경희 청송군수 및 실과원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22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1조 원씩 총 10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인구감소 방지 및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금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송사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기반 구축, 공공임대주택 조성, K-U시티 향노화 사업추진 등 22개 사업에 242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는 2025년 청송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함께 기금 배분 기준에 적합하게 투자 사업 개선 및 보완 방안 등 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진행됐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방안, 청송 여성고정시설 유치 등을 통한 정주 인구 증대 방

안, 청송사과 재배 기술 교육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정주 인구 유출 방지 및 귀농 인구 유입 효과 증대 방안 등 지역의 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도 논의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은 현실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청송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차별화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사는 청송군이 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여협,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전개



영양군이 주최하고 영양군여성단체협의회 소속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군지부협의회가 주관하는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사업이 4월 2일 종합복지회관 조리실에서 진행됐다.

올해 사업 시작 10년째를 맞이한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사업』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40여 명의 홀로 어르신들을 위해 분기마다

시행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회원들은 직접 조리한 미역국, 잡채, 불고기, 나물에 떡과 과일 등 생신 음식을 준비하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차려드리며 생신을 축하드리고 건강을 기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양군지부협의회 박정숙 회장은 "외롭게 생신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생신상을 받고 좋아하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라며 "오늘 하루만큼은 외로움을 잊고 따뜻한 하루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항상 솔선수범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는 대한적십자회 영양군지부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문화/기자

유채꽃과 벚꽃이 전하는 화려한 봄소식, 포항에서 만나세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 노란 유채 물결로 장관

포항 호미꽃에 봄방학을 머금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4월 초 현재 호미꽃의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는 유채꽃이 활짝 피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4월 중순까지는 만개한 유채꽃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미꽃 유채꽃 단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10만 평 이상의 넓은 유채밭으로 인기를 얻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포항 지역 곳곳의 벚꽃 명소들도 활짝 핀 연봉홍 벚꽃들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포항 벚꽃 명소로는 ▲포항 철길숲 ▲효곡동 영일대 연못 ▲창포동 마장지 ▲오여사 진입로 ▲청송대 둘레길 ▲환호공원 영일대해수욕장 등이 있으며, 지난달 말부터 개화를 시작한 벚꽃은 오는 주말 경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포항시와 아놀자가 함께 진행한 '벚꽃 여행은 포항으로!' 숙박이벤트는 닷새 만에 3,400장의 쿠폰이 소진되는 등 봄 시즌 관광객들의 포항 여행 수요를 실감케 했다. 또한 시는 지난 1일부터 유채꽃 명소인 호미꽃 등이 포함된 포항 시티투어 버스의 운영을 재개했으며, 포항 현지의 베테랑 관광 드라이버와 함께 원하는 코스를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택시도 운영하는 등 봄철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의 다양한 명소에 봄꽃들이 만발한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아 추억을 만들고 돌아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 도시로서의 포항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타용/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예천으로 거듭나다

지난 22일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낯아진 출산율에 전쟁을 선포했지만 높은 산후조리 비용과 고가의 육아용품,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등 전쟁 같은 육아 현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예천군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하고 임신부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출산 지원체계 확립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천군에 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은 높은 비용 부담과 원정 출산이라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예천군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천읍에 건립 중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의 건립은 관내에서 산후조리를 가능하게 만들고 산모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면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또한 예비부부·신혼부부의 건강검진과 임신부 산전 검사비 그리고 기형아 검사비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등 출산 지원체계도 확대하고 있으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한 임신부 교실'을 운영해 태아와 임신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고 있다. ◆돌봄 공백 없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노력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어보았을 돌봄 공백은 육아를 힘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50%가 넘는 맞벌이 가구의 비율(23년 6월 기준)만 보더라도 돌봄 시설의 확충이 얼마나 절실한지 짐작할 수 있다. 예천군은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아이들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원도심에는 장난감도서관과 돌봄센터로 갖춘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를 개관해 운영하고 호명읍에는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연령별 돌봄

이 가능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다. 또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과 함께 경북형돌봄거점센터를 만들고 돌봄과 방과후 학교를 통합한 늘봄학교 운영을 추진한다. ◆사교육 부담 줄이는 견고한 교육 체계 완성 사교육의 발달은 지역간 개인간 교육격차를 만들고 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예천군은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으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먼저 중고등학교 인성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예천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토대로 K-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력 신장을 위한 '학력신장중학교'를 추진해 수준별 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중심의 IB교육 과정 시범 도입하고 시대 변화에 맞춘 디지털 교육도 강화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신도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나 돌봄 체계의 구축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서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실사: 2024. 1. 22. (월) 11:00 장소: 봉부관 청백실

경북도, KT·포스텍과 디지털 트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서

경상북도가 1일 포항시, (주)KT, 포스텍,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그리고 관련 전문 기업들과 디지털 트윈 기반 사회 문제 해결 전략 수립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개별적으로 구축, 운영해 온 디지털 트윈 기술과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흩어져 있던 데이터를 연계해 재난 안전, 환경, 교통, 관광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이 디지털 트윈 효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선박 탄소중립 실천 관리(환경)', '인공지능 관광 가이드(관

광/교통)'등 디지털 트윈 연계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주)KT와 포스텍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구축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기업과 함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계해 나간다. 경북도는 이번 파트너십이 (주)KT의 ICT 응용 기술, 포스텍의 글로벌 선진 기술 연구, 전문 기업의 디지털 기술 역량이 만나 디지털 트윈 분야 글로벌 수출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디지털 트윈 시범 구역 조성 공모에도 참여한다. 이정우 메타버스과학국장은 "디지털



디지털 트윈 기술이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면서, "통합 플랫폼의 성과 확산을 위해 산학연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트윈 코리아 구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읍면에서도 KTX·SRT 타기 편리해진다"...경주시, 동·서 권역 오가는 급행버스 신설

경주역과 양남, 감포, 건천, 서면 오가는 급행버스 3개 노선 지난달 29일 첫 운행

경주역에서 동경주권(감포읍·양남면)과 서경주권(건천·서면)을 오가는 급행버스가 첫 운행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1100번(경주역↔북곡로터리, 어일, 감포) △1150번(경주역↔보문단지, 북곡사, 양남면) △1300번(경주역↔건천, 서면, 현곡푸르지오) 급행버스 노선 3개가 지난달 29일부터 운행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1100번은 왕복 4회로 경주역↔시외보스타미널↔옛북곡역↔문무대왕면↔감포 △1150번은 왕복 3회로 경주역↔시외보스타미널↔보문단지↔어일시장↔양남 △1300번은 왕복 6회로 경주역↔건천↔서면↔현곡 등이 주요 노선이다. 해당 노선 3곳은 지난 해 11월 운행에 나선 경주역~안강·외동 간 급행 2개 노선의 후속 사업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곳은 그간 경주역을 오가는 직행노선이 없어 KTX나 SRT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경주시는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영사와 협의를 통해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선을 신설하기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주역과 읍면지역을 오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신설 노선을 최소 정거장만 정차하는 급행버스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용객 추이 등 모니터링한 후 운행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직행 버스 신설은 수차례 시민과의 대화 등 소통 행정을 통해 건의된 안건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급행노선 신설로 시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타용/기자

안동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신청 활발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SW/ICT 기업 등 12개 업종 지원대상



안동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사업의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필요한 운전자금의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관내 190여 개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 일부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안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14개 협력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친 후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기업 최대 3억 원,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최대 5억 원,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며, 안동시는 1년간 대출자의 4%를 지원한다. 운전자금 신청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에서 하거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올해는 지원금리 인상(3.5% → 4%), SW/ICT 기업 추가, 우대기업에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추가 등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현재 50개 이상의 기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기업으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운전자금 지원이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받아

기한 내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받아...개 식용 종식에 최선을 다할 것.

봉화군은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러한 이유로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식품위생법 관련 업소(음식점, 건강원 등)는 오는 5월 7일까지 개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와 증빙서류(운영기간, 취급매뉴, 개고기 사용량 및 조리음식 매출액 등)를 지참해 봉화군 종합민원실 위생관리팀에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전·폐업 기준을 정해 지원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한 내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은 물론,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개고기 음식점 등 관련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해야만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 및 서류 제출 등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선일/기자



Q&A 1 신고 대상

- 1. 개고기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 등 개고기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 2. 개고기 판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자

Q&A 2 신고 내용 및 절차

- 1. 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별첨)와 개고기 사용·도살·유통·판매 관련 서류(별첨)를 첨부하여 신고서 제출한다.
- 2. 신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신고서 검토 결과를 통보받는다.

개식용종식법 관련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신고 기간: (신고) '24.2.6. - 5.7. (이행계획서) '24.2.6. - 8.5.

충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

도 감사위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전년대비 8.06% 상승한 56.52% 기록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처음으로 적용률이 50%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202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표본조사했으며, 지난해 대비 8.06%p 상승한 56.52%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점검에서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13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설직(토목직렬) 직원이 없음에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도 덕분에 설계기준 적용률 79.61%를 달성했다.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설계기준 적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하락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적용률 하락 원인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 맞추는 식의 단일한 업무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부족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음면 등 최하위 조직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결과공개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고 사망자 57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31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31명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19명으로 61.3%, 1억원 이하 사업장의 비율도 29%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건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 2021년 제도개선 권고(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사항으로 '발주기관별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도록 전국에 확대 전파됐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취약계층 및 경로당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

(사)두리장애인복지회와 방역소독 업무협약



아산시는 2일 시청실에서 (사)두리장애인복지회(회장 고준희)와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및 경로당 방역소독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사)두리장애인복지회 두리두리사업단이 해충, 악취 등 환경오염에 노출된 취약계층 가정과 경로당에 방역소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유해 환경 제거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고준희 회장은 "협약을 통해 위생 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과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살충·살균 소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봉

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사)두리장애인복지회의 활약으로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나눔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아산이 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2016년 10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두리장애인복지회는 소독·방역·건설위생관리업을 주 분야로 활동 중인 두리두리사업단을 비롯해 쓰레기 용기와 종량제봉투를 제작·판매하는 두리다담사업단, 판촉·인쇄물 제작 및 원격 자동검침시스템을 설치·관리하는 두리스마트사업단을 운영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희망나눔 캠페인 성금 및 헌혈 기부, 방역소독 지원 등 꾸준한 사회헌헌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4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개최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9일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1차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실무위원, 담당자 등 총 12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는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원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소개, 위기청소년 지원 사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진혜숙 센터장은 "청소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유형의 위기 취약 청소년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연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업 중단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디지털미디어 피해청소년 회복지원사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 충북 도민 함께해요!

충북도, 대상자 맞춤형 감염병예방 교육 및 체험으로 생활방역 정착



충북도는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화를 위해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시·군과 공동으로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통하여 도민에게 개인

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5~6월에는 도내 어린이집·유치원 74개소를 대상으로 11회의 '감염병 예방 인형극'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감염병 및 예방수칙에 대하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습득 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아울러, 11월 까지 교육지원청, 노인복지관, 산업체 등과 적극 연계하여 학생, 성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뷰박스 ATP를 활용한 손위생 체험 활동을 추진하고, 도내 지역 축제 행사 시 감염병 예방 체험 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하게 유지된 방역체계가 완화된 이후,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기후변화 및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속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실내환기를 생활화하는 등 생활방역 실천운동이 정착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정화/기자

'2024년 스포츠 재도약 태백시, 4월에도 스포츠대회 잇따라 개최

'스포츠 메카' 태백시는 4월에도 전국·도 단위 및 시 단위 스포츠대회를 풍성하게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 중 개최하는 대회는 총 7개로, 먼저 '전국 중별 태권도 선수권대회'가 2일부터 10일까지 9일 간 고원체육관에서 열린다.

대회 일정 중 2일부터 6일까지는 중등부 겨루기 경기가 열리며, 7일부터 10일까지는 초등부부터 일반부까지 품새 경기가 열린다.

이번 대회는 출전 선수 2,800여 명과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로, 경기 인원을 포함한 많은 태권도 관계자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권도 대회 종료 후 '전국 대학 핸드볼 통합리그 대회'가 12일부터 21일까지 9일 간 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되며, 대학부 13팀 300여 명의 선수를 포함한 많은 대회 관계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동점동에 위치한 태백스피드웨이에서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간 '2024년 태백시장배 스피드 페스티벌 1차전'과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간



'2024 태백 트랙 페스티벌 1차전'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1차전 경기를 시작으로 향후 스피드 페스티벌은 4회 경기가, 트랙 페스티벌은 5회 경기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시 단위 대회로는 '제27회 태백시협회장기 테니스대회'가 6일부터 7일까지 2일 간 태백스포츠파크에서 열린다.

또한, 고원1구장에서 '제15회 태백시협회장배 T리그 축구대회'가 4월 6일에 개막하여 10월 27일까지 7개월 간 치열한 순위경쟁을 하며, 스포츠파

크 야구장에서 '태백시 사회인 야구리그'가 4월 7일 개막하여 11월 3일까지 7개월 간 리그전으로 야구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시는 2024년 4월 현재 전국 및 도단위 56개 대회 개최가 확정됐으며 추후 추경예산 확보를 통한 2개 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개최로 체육관계자들이 태백을 자주 방문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상근/기자

함평 제26회 나비 대축제

HAMPYEONG BUTTERFLY FESTIVAL

2024. 4.26. (금) - 5.6. (월)

함평엑스포공원 일원

주최: 함평군, 주관: 함평문화재단, 후원: 함평체육관광부, 함평시의회, 함평교육지원청, 함평경찰서, 함평소방서, 함평농업기술센터, 함평도서관, 함평문화재단, 함평관광공사, 함평체육관광위원회, 함평청소년문화의집, 함평장애인복지회, 함평노년복지회, 함평여성회, 함평농민회, 함평농민회연합회, 함평농민회총연합회, 함평농민회총연합회, 함평농민회총연합회, 함평농민회총연합회, 함평농민회총연합회

경북교육청,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 추진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학습 결손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교육의 기초위에서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중학

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학업성취 수준 진단과 지원 강화, 학습 결손의 조기 예방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와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하고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과정 편성된 교과목의 학습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과 연계한 정서행동 발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임교사가 집중 지도를 하거나 특정 과목에 대한 보충 지도를 위해 교과교사와 외부 강사의 지도도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학습 도움을 제공한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학교 728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책임교육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학습 결손 해소를 위해 학생 맞춤형 튜터를 활용한 개별 지도와 여름·겨울방학 시기에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도약 계절학기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책임교육학년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결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학습과 성장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배움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달성교육지원청, 선후배 공무원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지다



신규 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결연식 개최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4월 2일에 달성교육지원청 행복관에서 2024년 신규 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결연식에는 신규 공무원 23명과 선배 공무원 9명이 참석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의 멘토링 활동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은 신규 공무원들이 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새로운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선후배 공무원 간 관계 형성을 위해 매년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 밀착형 멘토링'은 신규 공무원 1~3명과 7급 이하 선배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고, 대면 또는 비대면(전화, 메신저 등) 방식으로 멘토링이 필요한 업무 분야(급여, 세입, 지출 등)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신규공무원들이 공직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올해 4월 처음으로 직장 동아리를 권역별(화원권,

다사권, 테크노권)로 구성하여, 경직된 직장환경에서 벗어나 공예활동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현 대구달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멘토링 운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활기차고 즐거운 조직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선후배 공무원이 공존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봉화교육지원청, 미래를 구상하는 학교체육 기본방향 전달 연수

봉화교육지원청, 학교체육 기본방향 전달 연수 개최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은 2024년 4월 2일 15시 30분에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체육 업무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봉화 학교체육 기본방향 전달 연수'를 개최했다.

2024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은 학교체육 지원을 위한 3개 중점과제와 28개 세부 실행 과제를 설정해 학생들의 체력 증진, 학교 체육시설 개선, 선

진화된 학교 운동부 운영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연수에서는 봉화지역의 학교와 환경에 맞춘 체육운동을 위한 다양한 방향을 안내하고, 선진화된 학교운동부 운영과 학교체육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래 열매(미래를 열어가는 매일운동)라는 구호로 다양한 학생 체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봉화 주요 체육 행사 일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권재자는 "학교체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학교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경북교육청, 도전! 꿈 성취 인증제, 꿈을 향한 자기 성장의 발걸음

스스로 도전하고 실천하는 맞춤형 인성 프로그램 시행



경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 함양을 통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는 자기 성장 체험 프로그램인 '2024학년도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전! 꿈 성취 인증제'는 인문·봉사·체육·예술·영어 등 5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 가며, 잠재 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인성 역량을 함양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장·교육장·교육감 인증제로 운영한다.

먼저 학교장 인증제는 학교 특색과 구성원의 협의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

여 실천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인증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 선도학교 6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매년 200여교가 학교장 인증제를 운용해 왔다.

특히 올해는 학교장 인증제·교육장 인증제·교육감 인증제의 단계적 운영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학교에서 학교장 인증제를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장 인증제는 교육지원청 특색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인증제로서 2022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사회 연계 과제를 발굴하여 인증제를 운용하고 있

며, 인증서 수여와 성과 나눔회도 교육

지원청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 인증제는 경북의 지역적 특색과 주요 정책을 반영한 △책 쓰는 아이들 △우리 땅 독도 지킴이 △산토종림! 100일의 도전 스트레칭, 경북 속으로 △꿈다락(꿈多樂) 챌린지 △청소년 CEO 창업프로젝트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ENGLISH! SPEAK UP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과정은 도전! 꿈 성취 교육감 인증제 홈페이지를 활용해 진행된다.

경북교육청은 모든 인증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는 교육감 인증제 금장·은장·동장 인증서와 메달을 수여하는 인증식을 작년에 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까지 교육감 인증제를 통해 금장 21명, 은장 22명, 동장 74명의 학생이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교육도 중요하다"라며, "학생들이 도전! 꿈 성취 인증제를 통해 창의적·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참다운 자아의 발견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바른 인성을 지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목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부산교육청,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운영

부산대회 입상자에게는 전국대회 출전 자격 부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AI·디지털 기반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우수한 수업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부산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교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우수

교사 양성과 디지털 기반 학생 주도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대회 참가 희망 교사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후 수업 설계와 실행 관련 서면·현장 심사를 거쳐 7월 12일 최종 입상자로 선정된다.

입상자 전원은 10월 중 열릴 전국대

회에 부산 대표로 참여할 수 있고, 연구 실적 평정점 부여 등 인센티브도 받는다.

부산교육청은 본격적인 대회 운영에 앞서 2일 오후 3시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대회 참가 희망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 수업 혁신의 방향, 연구대회 참가 안내, 맞춤형 컨설팅 등 교육청 지원 방안 안내, 수업 혁신 우수사례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수업 혁신 사례 연구를 통한 교사의 수업 역량 강화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배움 중심 수업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다"며 "이번 연구대회가 수업 연구 문화를 확산하고, 연구·실천에 앞장서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영양나들이

영양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백곡원, 죽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박물관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봉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尹 대통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생토론회 실천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과 기업, 지방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히 살펴봤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다며 하나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며, 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라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러한 기조로 민생토론회를 한 결과 정부가 후속 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이며, 민생토론회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 10개의 정부 실천 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토론회에서 GTX 건설의 속도를 높여줬다고 약속드린 바 있으며, 3월 29일 수서-동탄

개통을 계기로 그 약속을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2월 1일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했던 의료개혁도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2월 5일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늘봄학교에 애착이 있다며, 올해만 벌써 늘봄학교를 네 차례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지난 3월 시작해 현재 2,838개로 늘어났고, 학교, 교육청, 지자체, 교육부 등이 원팀이 되어 학부모님과 아이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주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1월 30일 일곱 번째 디지털 주제 민생토론회 사례를 언급하며 윈스톡 행정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토론회 이후 3월 13일부

터 120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를 제로화해서 각종 서류를 갖추기 위해 이리저리 뛰지 않도록 바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보상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규제를 풀어 제갈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단말기유동법 폐지 방침을 정한 이후 시행령 개정 등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시행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이 확대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한 후 서울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으로 바꿨고, 부산시는 5월부터 동참하기로 했으며 더 많은 지자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책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에게 정책들을 쉽게 찾아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홍보 방법을 찾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부처별로 ▲'윈스톡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동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모든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오늘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국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운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어두운 지하보도가 첨단 기술 품은 서리플아트스튜디오로 변신

국립국악원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앞 어둡고 낡아 이용이 저조했던 지하보도가 활기찬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제1지하보도(서초동 1466-14번지 일대)에 문화 예술의 재미와 첨단 기술이 합쳐진 '서리플아트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유희공간이었던 이곳을 청년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펼치고, 주민들이 일상 속 문화예술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공연장, 악기 시설들이 집중한 전국 유일의 음악문화 지구 내에 위치해 예술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리플아트스튜디오'는 길이 40m, 너비 7.2m의 연면적 288㎡ 규모로 ▲음악으로 심을 제공하는 '뮤직팜'(약 33㎡) ▲LP와 함께 추억 가득한 '뮤직라이브러리'(약 17㎡) ▲청년예술인들의 꿈 가득한 '연습실 3개소'(약 74㎡)로 구성됐다.

지하보도 초입에 조성된 '뮤직팜'은 개방형 공간으로 음악감상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자유롭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첨단 멀티모달(Multimodal) AI 기술이 적용돼 얼굴·목소리를 인식해 나의 기분에 맞는 추천 음악을 들을 수 있어 사용자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중간에 위치한 '뮤직라이브러리'에서는 잠시 쉬어가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옛 감성을 자극하는 LP판과, 안락한 의자, 조명들로 꾸며져 추억 가득한 음악과 함께 휴식을 취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마지막으로 다목적 연습실 3곳은 대형 1개소와 소형 2개소로 구성됐는데, 개인부터 단체연습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에는 공연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서리플아트스튜디오' 운영시간은 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일~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연습실 대관은 서리플악기거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초구는 어둡고 노후화된 지하보도를 환한 스튜디오로 바꾸면서 보행자들의 안전도 꼼꼼히 챙겼다. 기존 방법

CCTV 외에 16개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안전한 시설 관리와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힘썼다.

한편, 구는 예술의전당 바로 앞의 지하보도도 2018년부터 '서리플청년아트갤러리'로 조성해 청년예술가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활동도 지원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리플아트스튜디오'가 주민과 보행자, 청년예술가를 문화로 잇는 징검다리 역할"이라며, "안전한 보행로이자 청년예술인들이 꿈을 키우는 흥미진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잘 운영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관악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한다

주택형 태양광 설치 30개소에 약 100만 원 구 보조금 지급, 선착순 모집

관악구가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에 나선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 옥상, 지붕 등 지정된 장소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시설이다.

주택형 태양광(3kW 기준)은 월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4인 가족 기준연간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는 올해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태양광 설치 시공업체와 계약 체결 후 4월 5일부터 16일까지 태양광 설치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후 4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택형 태양광 설치 신청은 주택 소유자만이 가능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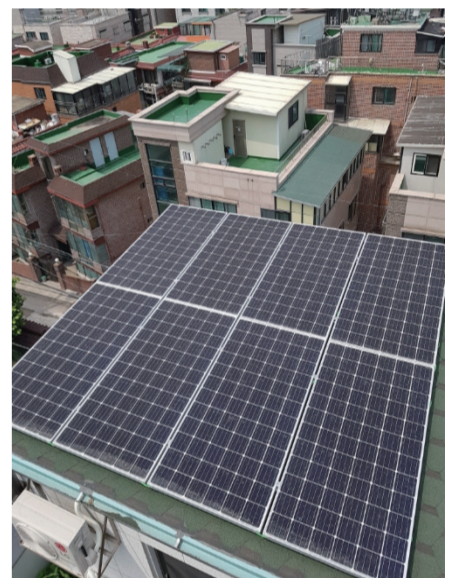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 승인이 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보조금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설치 비용은 3kW 설치 시 약 540만 원으로, 지원 보조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 약 213만 원, 관악구 약 100만 원이다. 자부담금은 약 227만 원이 소요된다.

한편, 구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사업 외에도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사업, 에코마일리지 회원가입,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에너지 자립과 절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에너지 자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무르익은 벚꽃 아래 때마침 '서대문 봄빛축제'

벚꽃공방, 체험부스, 푸드트럭도 시민에게 즐길 거리 더해



서대문구가 지난달 30~31일에 이어 '2024 서대문 봄빛축제' 둘째 주 행사를 이달 5~7일 안산(鞍山)과 홍제천 일대에서 개최한다.

'안산(鞍山)'은 봄마다 장관을 이루는 벚꽃으로, '홍제천'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대문 홍제폭포'와 '카페 폭포'로 잘 알려져 있다.

'서대문 벚꽃 라이브'는 5일 오후 3시 안산 벚꽃마당과 7일 오후 3시 홍

제천 카페 폭포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며 가수 이수나, 케이시, 박현빈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지대학교 학생들과 올해 1월 KBS 전국노래자랑 서대문구 편 수상자들도 출연해 의미를 더한다.

4월 5일 오후 6시에는 '함신익과 심포니송 오케스트라'가 홍제천 카페 폭포 인근 서대문구청 제2부설주차장에

서 클래식 공연을 선사한다. 봄의 소리 알츠, '사계' 중에서 봄, 스페인 무곡, 가곡 수선화 등을 연주하며 천여 명이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된다.

4월 6일 오후 3시 안산 벚꽃마당에서는 서대문구립여성합창단 등이 출연해 '가곡으로 만나는 봄' 공연을 연다.

같은 날 오후 6시 홍제천 카페 폭포 야외무대에서 펼쳐질 '봄빛 콘서트'에는 가수 홍지윤과 재즈밴드 톤어라운드, 아카펠라그룹 오직목소리, 성악양상률 라클라세 등이 출연한다.

주말인 6일과 7일에는 홍제천 일대에 벚꽃공방, 체험부스, 푸드트럭이 마련돼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더한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 안산 벚꽃 산책길과 안산 허브원 곳곳에 포토존과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특히 안산 벚꽃은 핑지 벚꽃이 지기 시작할 때에도 만개해 있어 나들이객들의 많은 발길을 모을 전망이다.

이성현 구청장은 "봄날 서대문 벚꽃 명소에서 아름다운 풍경과 다채로운 공연으로 일상의 즐거움과 여유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출발: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및 원원
전국 원소리 · 고수 원연대회, 추모제

제20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화가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일)
용치면 용연리 일림산 일원

제2회 보성대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일)
농림마당 주차장(보성역 옆)

2024. 5. 3.(금) ~ 5. 7.(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공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자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느리게 거닐어 보라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